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새해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실 분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실(지하식당 앞)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일찍 오신 분들부터 앞자리, 안쪽 자리부터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의자의 정원을 채워서 앉아 주십시오.

설날 가정예배를 돕기 위한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부씩 가져가세요.

명절 음식은 너무 많지 않게 만들고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사 9:1~4 / 시 27:1, 4~9 고전 1:10~18 / 마 4:12~23

히 10:19-25

오늘 식당 봉사 : 이영란 이현순 이소애 이소혜 이승진 이소순 강세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김나경 박석희 이국노
오늘설거지봉사 : 추현영 박진숙 박경선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벌써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든 옛집과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성소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본디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인간 중심의 삶을 반성합니다.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많은 가축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태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의심만으로 여러 생명들을 죽이는 것을 옳지 않을뿐더러, 언젠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권혁순 박혜경 김문주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필순
 김흥기 김훈동 방극숙 박기영 박옥식 변재민 이소혜 유금주 이경민
 이준림 장영숙 정현모 조관행 홍선희 최미자 최윤희 최은미 하현철
 최성애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강순배 김명하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김진중 박창운 허정운
 신민철 신진식 변혜정 이완구 이현희 이영은 전희수 조은성 차혜심
 한미영 무명10

생일감사헌금

박시내 허호범 박성실

녹색꿈헌금

김윤하 김향자 이영순 무명5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심	심
	곽권희	김윤수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박숙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마음으로 읽는 글

설산 가는 길 2

- 윤제림

식당에도 여관에도 장마당에도

인간의 상품보다는

하늘나라 물건이 흔하더군

세숫물도 목욕물도

신과 짐승과 사람이 함께 쓰더군

물건 참 오래 쓰고 곱게 쓰더군

만년(萬年) 묵은 눈이

아직도

새것이더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치가 전도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런 굳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본향,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이범석 목사	오프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광권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조재훈 선생 권혁순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헌금위원	조병무 권미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낙심하지 않는다

1971년 초겨울 때의 일이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농장에 올라가기 위해 트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뒤를 어머니께서 따라 나오셨다. 어머니는 막 차 문을 열려는 나를 불러 세우셨다. 어머니는 원래 조용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다.

“성은아, 너 쫓아내려고 학생들이 데모하려 한단다.”

나를 올려다보시는 어머니의 눈, 그 때 그 눈이 얼마나 슬퍼 보이던지. 나는 그 눈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었다.

“엄마, 우리 아이들 참 똑똑하네요. 나 같은 놈은 쫓아내야 해요. 우리 아이들 참 똑똑해, 그치?”

어머니의 눈을 마주한 내 눈에는 감사와 애정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 드린 뒤 트럭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농장으로 가는 내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사로 차분해졌다.

“아! 아이들이 참 똑똑하구나!”

나는 6년 전인 1965년 ‘농사짓는 선생의 꿈’을 품고 모교인 거창고등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세 분의 선생을 제외한 모든 동료 선생과 학생들에게는 단지 ‘교장의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부임하던 첫날 들어간 3학년 1반 첫 수업 시간에 그 현실을 마주했다. 농업 수업이었다. 출석을 다 부르고 출석부를 덮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 학생이 질문했다. “왜 농업을 배우지요?” 거창고에선 실업 과목으로 농업을 가르쳐 왔으나 농업 교사를 구하지 못해 약 3년째 농업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던 그 학생은 농업은 농고에서만 가르치는 과목이니 인문계인 거창고등학교에는 원래 농업 과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농대를 나온 교장 아들을 선생으로 부임시키기 위한 조치로 농업이라는 과목이 신설됐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

었던 상황이었다. 그 학생만은 아닐 것이다. ...

내가 그날 밤 학생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나 같은 놈은 교사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나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미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교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나 자신에게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될 자질과 능력과 성격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나는 구제 불능이었다. 나 같은 놈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제, 어떻게 되도록 부모님께 상처 주지 않고 떠날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해에 서울로 올라갔다.

대학을 갓 나와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훌륭한 교사인데도 나처럼 한 3년 쯤 지나 자신이 교사로서 자질과 인격이 부족하다고 자신에게 절망하는 교사를 종종 보았다.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는 존재다.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는 존재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인간을 성숙시키는 힘이다.

하지만 낙심은 자기가 목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이때 실망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따르지 않은 결과다. ‘열정을 바쳤는데, 열정을 바쳤으면 아이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빛나갔던 아이들도 내 열정에 감동해서 돌아와야 하는데...’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낙심은 온갖 이기주의와 지배욕과 경쟁심과 허영에서 온다. 그러나 절망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임을 발견할 때 온다. 낙심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한다. 그래서 공자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라.”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원한과 복수심을 품게 된다고 경고했다.